

금 등잔대 사이에 서신 사람의 아들 ✨

I. 서론

요한계시록 1:1–20은 책 전체를 여는 서문이자 해석의 열쇠입니다. 본문은 “누가 말씀하시는가(그리스도), 무엇을 보여 주시는가(교회와 재림),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읽고·듣고·지키기)”를 한 절씩 풀어 줍니다. 아래 강해는 각 절마다 요지 → 원어·텍스트 → 그리스도론 → 계시록 연결(전개/반복) → 적용 순으로 제시합니다.

II. 문맥 배경 🌐

- 기록자: 사도 요한(말년, 밤모 섬 유배). (마 4:18-22 → 요 21: 22-23)
 - 수신자: 소아시아의 일곱 실제 교회(에베소·서머나·버가모·두아디라·사데·필라델피아·라오디게아). 7=총 만·대표성. 첫 사랑(구원)으로 시작하여 미지근함(혼합, 세상과 동화, 배교)의 교회사의 요약
 - 형식: 예언+서신+묵시(환상과 상징)의 결합. 보여 주심 → 기록 → 선포.
 - 전개 힌지: “성령 안에”(1:10; 4:2; 17:3; 21:10) 네 지점이 구조적 분할선 역할.(시작 → 영광 → 심판 → 새창조)
-

III. 원어 핵심 📚

- ἀποκάλυψις(apokalypsis, Revelation)= 가림을 벗김 → 그리스도의 드러남.
 - μαρτυρία(martyria, testimony)= 법정 증언 → 삼중 증언의 확증.
 - σημαίνω(sēmainō, signify)= 표징들로 알리다 → 상징 해석의 정당성 근거.
 - Κύριος ἡμέρα(Lord's day)= 문맥상 여호와의 날(종말적 시현) 해석 가능.
 - χαλκολίβανον(fine brass)= 불로 단련된 놋(심판 상징).
-

IV. 성경 문법·텍스트 주의 🧩

- 예언적 시제: *cometh*(1:7), *is at hand*(1:3)= 임박성과 확실성을 표현하는 예언법.
- KJB 보존 말씀:
 - 1:5 “**washed us**”(피로 씻으심)
 - 1:8 “**the beginning and the ending**”

- 1:11 “I am Alpha and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 그리스도의 신성·구속을 선명히 보존.
-

V. 절별 강의 개요 (KJB+흠정역) 🔎

v.1

- **요지:** 계시의 근원과 전달—하나님 → 예수 그리스도 → 천사 → 요한 → 종들. 목적은 “곧 있을 일들”을 표징들로 알리시는 것.
 - **원어·텍스트:** ἀποκάλυψις(*apokalypsis*, **Revelation**)= 가림을 벗김. ἐν τάχει(**shortly**)= 예언적 임박성(already but not yet). ἐσήμανεν(*sēmainō*, **signified**)= 상징(**signs**)을 통해 알리심.
 - **그리스도론:** 예수는 계시의 전달자이자 내용 자체. 아들이 아버지를 설명(요 1:18)하듯, 계시의 중심은 인물(예수)입니다.
 - **계시록 연결:** “천사를 보내어 보이심”은 22:6, 16에서 수미쌍관. “곧”이라는 임박성은 22:7, 12, 20에서 반복 강화. “표징”은 12–13장 상징 전개(여인, 용, 짐승)의 해석(*hermeneutic*)의 기초.
 - **적용:** 성경 읽기의 출발점은 위로부터 오는 계시(구약: 성막의 금등잔대, 신약: 성령의 조명). 우리는 사건 해설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증언자.
-

v.2

- **요지:** 요한의 삼중 증언—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언, 본 모든 것.
 - **원어·텍스트:** μαρτυρία(*martyria*, **testimony**)= 법정 용어. 두세 증인(신 19:15)의 원리가 계시의 신빙성을 뒷받침.
 - **그리스도론:** 말씀—증언—시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예수는 신실한 증인(v.5).
 - **계시록 연결:**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19:10)으로 재정의. “증언”은 12:11(증언의 말)과 20:4(예수의 증언 때문에 순교)에서 재등장.
 - **적용:** 설교·전도(그리스도인의 삶)는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일(요 19:35).
-

v.3

- **요지:** 첫 복(**1/7**)—읽는 자(단수), 듣고 지키는 자들(복수). 때가 가까움.
- **원어·텍스트:** ἀναγινώσκων(*readeth*, 단수)= 대표 낭독자. ἀκούοντες/τηροῦντες(복수)= 회중의 순종. 때 (*kairos*)=“달력의 길이”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 시점. “가까움”(*ἐγγύς*)= 긴장된 현재성.
- **그리스도론:** 복은 그리스도를 듣고 지키는 공동체 위에 있습니다(눅 11:28).

- 계시록 연결: “복 있는 자”는 14:13; 16:15; 19:9; 20:6; 22:7; 22:14까지 총 7복으로 이어지는 서사 레일.
 - 적용: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복이 되는 책, 복을 주는 책, 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책.
-

v.4

- 요지: 수신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 인사는 여호와의 자기 계시와 일곱 영(성령의 충만).
 - 원어·텍스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출 3:14의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신약적으로 재진술. Ἐπτὰ πνεύματα(**seven Spirits**)= 충만의 성령(사 11:2).
 - 그리스도론: 은혜와 평강은 삼위 하나님의 흐름에서 온다.
 - 계시록 연결: “일곱 교회”는 2–3장의 편지로 전개. “일곱 영”은 3:1; 4:5; 5:6에서 교회-왕좌를 잇는 조명으로 반복.
 - 적용: 지역 교회는 보편 교회를 대표(완전수 7).
-

v.5

- 요지: 예수의 삼중 칭호—신실한 증인, 죽은 자들의 처음 난 자, 땅의 왕들의 통치자. 그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으심(KJB **washed us**).
 - 원어·텍스트: λούσαντι(washed)= 피로 정결(레 17:11; 해 9:14). 일부 비평본 “loosed”와 구별.
 - 그리스도론: 대제사장적 속죄와 우주적 통치가 동시에 선포.
 - 계시록 연결: “피”는 5:9–10(피로 사심), 7:14(어린양의 피에 씻음)로 확장. “통치”는 17:14; 19:16의 만왕의 왕으로 완결.
 - 적용: 속죄는 감정이 아닌 사실—객관적 역사 사건을 통한 선포.
-

v.6

- 요지: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 곧 그의 아버지께 영광.
 - 원어·텍스트: “**his Father**” 보존(KJB)= 성자와 성부의 구별·친교 명확.
 - 그리스도론: 창 1:28의 통치와 중보(출 19:6)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
 - 계시록 연결: 5:10 “우리가 땅에서 통치”로 미래 통치가 구체화. 20:6에는 천년 동안 통치로 연결.
 - 적용: 오늘 왕-제사장으로 서는 작은 실천(가정 중보, 직장 청지기)의 태도.
-

v.7

- 요지: “보라,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모든 눈이 보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본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
 - 원어·텍스트: ἔρχεται(**cometh**, 현재)= 예언적 현재.
 - 그리스도론: 단 7:13의 사람의 아들이 영광 구름과 함께 오시는 왕의 공식적 출현.
 - 계시록 연결: 6:15–17(진노의 큰 날), 14:14(구름 위의 사람의 아들), 19:11–16(가시적 재림)로 연속.
즉 12:10 인용은 1:7에서 열고 12:10–12에서 회개/심판의 양면으로 확장.
 - 적용: 재림을 논쟁거리가 아니라 삶의 소망으로 품음. **마라나타의 신앙
-

v.8

- 요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마침, 전능자.”
 - 원어·텍스트: KJB의 “**the beginning and the ending**” 보존= 영원·주권의 강조.(개역개정, NIV - 없음)
 - 그리스도론: 예수의 여호와적 자기 동일화—사 44:6과 등치.
 - 계시록 연결: 21:6; 22:13의 동일 선언이 서문—결문 구조를 형성.
 - 적용: 성도의 안전은 주권자의 이름 안에 있음.(시 20:7)
-

v.9

- 요지: 요한은 환난–왕국–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는 형제. 밧모에 유배된 이유는 말씀과 예수의 증언.(1:2. '자기가 본 모든 것' 언급 없음)
 - 원어·텍스트: συγκοινωνός(**partaker**)= 함께 나눔. 고난은 왕국의 대체재가 아니라 통로.
 - 그리스도론: 왕국은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음.
 - 계시록 연결: “말씀과 증언 때문에”는 6:9; 20:4에서 순교의 이유로 재현. “환난”은 2:9(서머나)와 7:14(큰 환난)로 이어짐.
 - 적용: 고난은 왕국 군사 훈련으로 장교가 되는 수업(행 14:22). 매일 십자가를 지는 연습(눅 9:23)
-

v.10

- 요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음.
- 원어·텍스트: ἐγενόμην ἐν πνεύματι(**I was in the Spirit**)= 계시의 운반 상태. “주의 날”은 (1) 주일 이해와 (2) 여호와의 날(종말) 이해가 가능—문맥상 종말적 시현의 전조.
- 그리스도론: 나팔 소리같은 큰 음성-왕의 소집(출 19:16)과 동일한 위엄.
- 계시록 연결: “성령 안에”는 4:2; 17:3; 21:10의 네 개 전환점을 이루는 서사적 힌지. “큰 음성”은 4–5장의 왕좌 장면으로 직결.

- 적용: 예배는 성령 안에서 왕의 음성을 듣는 훈련.
-

v.11

- 요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보는 것을 책에 쓰라—일곱 교회에 보내라.”
 - 원어·텍스트: KJB에 알파·오메가 선언이 본문 내 보존되어 화자 권위를 강화.(개역개정, NIV - 없음)
 - 그리스도론: 계시–기록–교회 송달은 왕의 명령.
 - 계시록 연결: “쓰라”는 동사가 2–3장에서 각 교회 서신의 머리말로 반복. 기록 개시는 22:18–19의 경고로 종결.
 - 적용: 보여 주신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교회에서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누려야 함.
-

v.12

- 요지: “돌아보아” 보니 일곱 금등잔대.
 - 원어·텍스트: ἐπέστρεψα(I turned)= 방향 전환 뒤 시야 열림의 상징.
 - 그리스도론: 교회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주(마 1:23. 임마누엘).
 - 계시록 연결: 등잔대는 2:1에서 “가운데를 거니시는” 그리스도와 연결, 2:5에서는 등잔대 옮김의 경고로 이어짐.
 - 적용: 교회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등대.
-

v.13

- 요지: 등잔대들 사이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발까지 내려온 옷(ποδήρης), 가슴의 금 띠.
 - 원어·텍스트: ποδήρης(garment down to the foot)= 대제사장 이미지(출 28). “사람의 아들”= 단 7:13. 가슴의 금 띠는 사역의 고귀함/완결성.
 - 그리스도론: 왕-대제사장이 교회 한가운데 임재.
 - 계시록 연결: “사람의 아들”은 14:14의 추수-심판 주권으로 재등장.
 - 적용: 삶의 거룩은 그분의 임재 중심성에서 시작.
-

v.14

- 요지: 머리와 털이 눈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음.
- 원어·텍스트: 단 7:9의 “옛적부터 계신 분”과 속성 공유—본질 동일성의 암시.

- 그리스도론: 거룩·정결·전지—눈의 불꽃은 투시/심판.
 - 계시록 연결: “불꽃 같은 눈”은 2:18(두아디라), 19:12(재림 주)에서 반복, 교회 판단과 세상 심판 모두에 적용.
 - 적용: 숨길 것 없는 회개가 온전한 기도임을 가르침(히 4:13).
-

v.15

- 요지: 발은 불에 단련된 빛난 놋(*χαλκολίβανον*), 음성은 많은 물 소리.
 - 원어·텍스트: 놋= 심판의 금속(번제단). “많은 물 소리”= 갤 43:2의 여호와의 음성.
 - 그리스도론: 심판의 견고함과 권위의 장엄.
 - 계시록 연결: “많은 물 소리”는 14:2; 19:6(큰 무리의 소리)로 확대, 하늘 예배의 음향적 스케일을 예고. (모든 민족들을 향한 선포)
 - 적용: 소음의 시대에 그분의 음성을 먼저 듣는 훈련.(칵테일 파티 이펙트)
-

v.16

- 요지: 오른손에 일곱 별,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 얼굴은 해처럼 빛남.
 - 원어·텍스트: *ρόμφαία δίστομος*(**sharp twoedged sword**)= 말씀의 사법권(히 4:12; 엡 6:17), 궁 헐과 심판의 양날
 - 그리스도론: 주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심판하심. 별은 교회의 천사들(v.20).
 - 계시록 연결: “검”은 2:12, 16(버가모)에서 책망/회개의 도구로, “오른손의 별”은 2:1에서 보호/권위로 이어짐. “해 같은 얼굴”은 10:1의 천사 묘사와 대비를 이룸(그리스도의 독보성).
 - 적용: 사역의 권위는 오른손(주권)과 입의 검(말씀)에서 나옴.
-

v.17

- 요지: 요한이 죽은 자 같이 엎드림. 주께서 오른손을 얹어 “두려워하지 말라—나는 처음과 마지막”.
 - 원어·텍스트: 이사야적 여호와 선언(사 44:6)과 동일한 자기 계시.
 - 그리스도론: 영광의 임재는 우리를 엎드리게,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킨다.
 - 계시록 연결: “처음과 마지막”은 2:8(서머나 편지)로 이어져 박해 교회의 위로가 됨.
 - 적용: 예배는 경외와 위로가 공존.
-

v.18

- 요지: “살아 있는 자...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노라.” 지옥(ἄδης, KJB hell)과 사망의 열쇠 소유.
 - 원어·텍스트: “열쇠”= 절대 관할권(사 22:22).
 - 그리스도론: 부활 주권자—죽음과 지옥을 개폐하시는 분.
 - 계시록 연결: 3:7의 다윗의 열쇠(그리스도), 20:1의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천사)와 대비—열쇠들의 위계를 보여 줌.
 - 적용: 죽음의 공포는 열쇠의 주 앞에서 무력함을 깨닫는 평안.
-

v.19

- 요지: “본 것(과거)—있는 것들(현재)—이후에 있을 것들(미래)을 기록하라.” 책의 공인된 개요.
 - 원어·텍스트: μετὰ ταῦτα(hereafter/그 뒤에)= 구조 전환의 힌지(4:1).
 - 그리스도론: 역사·현재·미래의 주권자.
 - 계시록 연결: 1장(본 것) → 2–3장(있는 것들) → 4–22장(이후)로 책 전체의 지도 제시.
 - 적용: 본문을 이 개요 레일 위에서 읽을 때 혼동이 줄어듬.
-

v.20

- 요지: 신비의 해석—별=일곱 교회의 천사들, 등잔대=일곱 교회.
 - 원어·텍스트: ἄγγελος(angel/messenger)= 하늘 존재로 해석할 수 있으나(상징 일관성), 서신은 실제 지역 교회에 낭독됨(이중 초점).
 - 그리스도론: 오른손의 별= 주의 보호와 권한 부여(마 18:10). 등잔대는 그분의 임재로 밝아짐.
 - 계시록 연결: 2–3장의 모든 편지 머리말이 “그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로 시작—1:20이 전체 편지 해석 열쇠. 2:5의 “등잔대를 옮기리라”는 경고로 성경적 적용이 구체화.
 - 적용: 교회의 빛은 임재와 말씀으로 유지.
-

VI. 그리스도론적 관통선 ✨

1. 계시의 주체·내용: 예수 그리스도(1–3절) → 4–5장의 왕좌와 어린양.
2. 삼위의 인사: 아버지—성령의 일곱 영—아들(4–5절).
3. 왕·제사장 공동체: 피로 씻김과 신분(5–6절) → 5:9–10; 20:6.
4. 가시적 재림: 구름·만민의 목격(7절) → 14:14; 19:11–16.

5. 알파·오메가: 영원·전능(8절) → 21:6; 22:13.
 6. 교회 한가운데 임재(임마누엘): 금등잔대 사이의 사람의 아들(12–13절) → 2–3장.
 7. 거룩·심판·말씀: 눈·발·검(14–16절) → 2:12, 18; 19:15.
 8. 두려움의 극복: “두려워 말라”(17–18절).
 9. 책의 개요: 과거–현재–미래(19–20절) → 전권 구조.
-

VII. 성경 간 연결(핵심 링크)

단 7:9, 13–14 ↔ 계 1:13–14 | 출 25:31–40 ↔ 계 1:12, 20 | 속 12:10; 마 24:30; 행 1:9–11 ↔ 계 1:7 | 히 4:12; 앱 6:17 ↔ 계 1:16 | 사 11:2 ↔ 계 1:4 | 벤전 2:9 ↔ 계 1:6

VIII. 참고구절

출 25:31–40 → 단 7:13–14 → 속 12:10 → 마 24:30 → 행 1:9–11 → 히 4:12

XIII. 믿음의 예(구체 사례)

- 존 번연(**John Bunyan, A.D. 1628–1688**): 복음 전파 금지 명령을 거부하고 베드퍼드 감옥에서 ‘천로 역정’의 씨앗을 잉태. “환난–왕국–인내”(1:9)의 현대적 실례.
 - 폴리갑(**Polycarp, A.D. 69–155/156**): “그분은 여든여섯 해 동안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신실한 증언(1:5)과 두려움의 극복(1:17–18)의 표본.
-

XIV. 결론

1:1–20은 계시록 전체의 작은 우주입니다. 계시의 사슬로 그리스도를 보고(1–3), 삼위의 은혜와 피의 복음을
붙들며(4–6), 가시적 재림을 소망합니다(7–8). 고난–왕국–인내 속에서도(9) 성령 안에서 왕의 음성을 듣고
(10–11), 금등잔대 사이의 왕–대제사장을 뵙습니다(12–16). 그분은 두려움을 거두고(17), 사망과 지옥의 열
쇠를 통치하십니다(18). 마지막으로 주신 개요(19–20)를 붙들어 계시록을 읽고·듣고·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1:3).